

택지 447만평, 누가 들어와 사나

이슈 현장 남악신도시 일대 목포·무안 난개발 우려

전남도 옹골지구 연내 착공... 인근 지자체들도 앞다퉀 개발
미분양·집값 하락 등 부작용... 개발계획 선택과 집중 필요



전남도청의 무안군 이전에 따라 조성된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이 전남도의 옹골지구 연내 착공 방침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옹골지구 가 첫 삽을 뜨게 되면 목암·남악·오룡 등 3개 지구로 개발되는 남악신도시 1단계(남악·옥암중심권, 14.5km) 공사가 마무리된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남악신도시 2단계인 임성리역세권, 3단계 망월부도심권 등 남악 일대에 너무 많은 택지가 개발되고, 목포시도 백련·용해2·대성지구 등 잇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 일대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 침체 속에서 대규모 택지에 아파트를 지을 건설사를 찾기 힘들고, 자칫 택지 분양이 되지 않아 건물과 이주민은 없는 유평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남악신도시 일대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남도는 25일 “올 하반기 옹골지구 개발사업을 착공해 오는 2021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7km에 달하는 옹골지구 개발사업은 5990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17년 1단계로 택지 72만㎡를 조성하게 된다. 또 업무·상업·문화 기능을 갖춘 수변생태도시로 개발되며 2만 2000여명 거주가 목표다.

남악신도시 1단계는 지난 2003년 시작돼 남악(무안)과 옥암(목포)지구의 사업이 마무리됐지만 그동안 옹골지구는 전담도가 하수처리장 비용 문제로 무안군과 마찰을 빚으면서 늦어졌다.

옹골지구 개발로 남악신도시 1단계 사업은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게 됐지만 문제는 임성(2.9km)·망월지구(2.7km) 등 인근에 무분별한 택지 개발이 예정돼 있고, 목포시도 구도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지구가 모두 개발되면, 전남

도청 인근 땅 14.78km(447만950평)에 새로운 택지가 생기게 되고, 재개발로 목포 원도심에도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남악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목포·무안 일대의 도시 계획이 실패로 끝날 수 있다.

실제 개발을 마친 남악과 옹골지구의 분양률은 현재 80%에 머물고 있고, 인구유입도 3만9000명으로 애초 계획이었던 6만1000명 대비 63%에 그쳤다. 최근에는 분양을 시작한 옥암지구 한 아파트는 청약자가 거의 없어 예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악과 옥암지구 입주주민들도 대부분 무안(10%)과 목포(64%) 인근 전남권(14%)에서 옮겨왔고, 전남 이외 지역 이주민은 12%에 그쳤다. 결국 새로운 택지가 개발되더라도 인구 유입 효과는 작고 무안과 목포 등지의 인근 주민들이 거주지만 옮기는 ‘풍선효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5월, 한국은행 목포본부가 전남도청 이전 후 7년간의 인구증가와 경제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지만 목포 원도심 활력 저하 등 부정적인 현상도 많았다고 지적됐다.

이런 택지 개발로 인한 남악과 옹골지구 아파트 가격 하락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이 일대 아파트 가격은 전남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목포시 옥암동과 무안군 삼함동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당 160만~172만원선이다. 인구는 한정돼 있는데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면 가격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너무 많은 택지가 개발되면 지역 내에서 이를 소화할 수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전남도, 목포시, 무안군 등 지자체간 이해관계를 떠나 근본적으로 이 일대 계획을 재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염부의 등 뒤로 오는 가을 25일 하얗게 소금꽃이 피어난 영광군 백수읍 한 염전에서 염부들이 구름을 머금은 하늘을 뒤로 한 채 소금을 거둬 들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력난에 한빛원전 1호기 예방정비 연기 “원전정책 안전 불감” 6호기는 재가동 승인

정부가 애초 계획했던 원전의 계획 예방 정비 기간을 줄줄이 늦추면서 전력 수급 상황에 관심을 기울일 뿐 원전 안전성 확보에는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정됐던 원전 예방 정비 일정이 단 시간 만에 바뀌면서 원전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정책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6일로 예정됐던 한빛(영광) 1호기의 계획예방정비

기간을 이를 늦춘 28일부터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관련기사 2면>

한빛 6호기가 불시 중단된 21일, 전력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방정비 일정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던 방침을 산업통상자원부 요청(23일) 이후 긴급하게 수정한 것이다. 1호기는 27일 자동 감발(발전 출력을 낮추는 현상)에 들어가 28일 모든 발전을 정지하고 예방 정비에 들어가게 된다.

원전의 계획예방정비는 원전 안전

운용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관련법에 따라 기간도 정해져 있다.

수력원자력의 이번 조치는 올진 5호기(4월), 월성 3호기(6월)의 예방정비 일정을 전력난을 이유로 긴급하게 수정, 부랴부랴 늦춘 데 이어 세 번째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 원전의 경우 지난 3월 3호기 재가동 승인 과정에서 수차례 말을 바꾸는 등 혼선을 빚었다는 점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 ‘입’만 보고 있다고

이산가족 상봉 1차 후보자 500명 추첨 선발

남북 100명씩 내달 25~30일 금강산서 상봉 합의

남북이 다음 달 25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는 1차 상봉 후보자 500명을 추첨하고 본격적인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남북은 지난 23일 관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추석을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진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개항의 합의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2010년 10월 마지막으로 실시된 뒤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3년만에 재개되게 됐다. 내달 상봉할 이산가족 규모는 남북 각각 100명으로 하기로 했으며, 상봉의 방법과 형식은 관례에 따르기로 했다.

남북은 추석 상봉에 이어 11월 안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하는데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추석 상봉 직후 적십자 실무접촉을 추가로 열기로 했다.

양측은 대면 상봉과 별도로 ‘화상 상봉’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갖기로 했다. 규모는 쌍방 40가족씩 하기로 했다.

양측은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오는 29일 생사확인을 의뢰할 200~250명의 명단을 교환한 뒤 내달 13일 생사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16일에는 최종 명단을 각각 교환하기로 했다. 상봉 5일 전에는 선발대가 금강산에 파견된다.

한편, 한적은 지난 24일 오전 11시 서울 남산 본사 4층 강당에서 컴퓨터 추첨행사를 하고 유종근 한적 총재의 ‘들리’ 한 번으로 500명의 1차 상봉 후보자를 선정했다.

한적은 이날 선정된 500명의 1차 후보자를 대상으로 상봉의사 확인 및 건강검진을 하고 200~250명을 선발해 29일 북한 적십자사와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신성자동차㈜ www.gi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점시장
The C-Class 36개월 무이자+주유비 지원 100만원
문의 : 062)226-0001

2014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수시 1차모집]

■ 원서접수 : 9월 4일(수) ~ 13일(금)

입학문의 062)605-1114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의 손이 잡은 것은 불확실한 **행운**입니까? 지켜야 할 **행복**입니까?

가족의 행복을 뒤로 할 만큼 더 큰 행운은 없습니다. 건전하게 즐기고 단호하게 멈추는 게임문화, 모두가 건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가차원의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 확대를 위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1855-0112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080-300-8275 (발리치료)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상담, 재활지원